

## 제목: 편견을 통해서 살펴본 성평등의 의미와 성찰

정재현, 사학과, 201821772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히잡 미착용 여성이 체포된 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지금까지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평등’은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 요소로 자리 잡았다. 결국 이와 같은 시대의 도래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신속한 산업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는 ‘성평등’이라는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성평등이란 무엇일까?’

성평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더불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란 단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필자는 본 글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성평등’이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 요소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불어 어떤 점을 성찰해야 할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 본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을 말하기에 앞서, ‘성 불평등’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욱더 쉽게, 필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성 불평등’은 ‘편견’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편견은 무엇일까?

1775년 잉글랜드 햄프셔 주 스티븐스에서 태어난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소설책 『오만과 편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글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스틴은 ‘편견’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시인했다.

더불어 우리는 희대의 저작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편견’의 무서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책 『프랑켄슈타인』에서 나오는 괴물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괴물의 소름 끼치는 외모는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고 간다. 하지만 괴물은 혼자서 불어를 공부할 정도로 지능이 뛰어났으며, 문학작품을 읽고 감동할 줄도 알았다. 하지만 이러한 괴물의 높은 지능과 공감 능력에도 불구하고, 괴물은 ‘괴물 외모’ 때문에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 즉 괴물은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외모’ 하나 때문에,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별받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판단되어 왔던 것이다.<sup>1)</sup> 또한, 사람들은 괴물의 끔찍한 외모 때문에 괴물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결국 사람들은 ‘괴물의 외모’라는 편견 때문에 괴물의 본질, 즉 높은 공감 능력과 높은 지능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괴물의 끔찍한 외모만을 본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명작들을 통해서 편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즉, 우리는 책 『오만과 편견』을 통해서 ‘편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책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편견’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을 보지 못 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위에서 ‘성 불평등’이 편견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성 불평등’을 ‘그들은 우리랑 성별이 달라’라는 아주 사소한 부분만으로 남성과 여성

---

1) [EBS 스토리 기획]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그의 이름을 아시나요?” EBS 스토리 기자단 12기 김예은 기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6577&memberNo=1328891&vType=VERTICAL>)

그리고 성 소수자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상태 또는 그들을 차등적으로 사랑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싶다. 달리 말해서, 성 불평등이란 ‘그들은 *우리랑 성별이 달라*’라는 아주 사소한 편견 때문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더불어 성 불평등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그들은 *우리랑 성별이 달라*’라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이 ‘성 불평등’을 정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평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가령 필자는 모르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를 찾아본다. 하지만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아도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필자는 그 단어의 반의어를 찾아본다. 그리고 그 반의어를 가지고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성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반대되는 뜻을 성평등이라고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 따라서 필자에게 ‘성평등’이란 ‘그들은 *우리랑 성별이 달라*’라는 아주 사소한 부분 또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더불어 그들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상태이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평등’은 국가의 주요한 경쟁력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다시 책 『프랑켄슈타인』으로 돌아가 보자. 책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본질이 아닌 사소한 부분, 즉 ‘편견’이라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더불어 이러한 편견을 토대로 그들을 불공평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 결국 우리도 편견 또는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불어 그들을 차등적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끔찍한 외모’라는 아주 사소한 부분 또는 그러한 편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sup>2)</sup>, 필자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의 사소한 부분, 즉 ‘그들은 *우리랑 성별이 달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차등적으로 사랑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치명적인 편견을 견어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치명적인 편견으로 인해 받은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실현 불가능한 꿈을 향해 달려간다.<sup>3)</sup> 결코 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말이다.<sup>4)</sup> 마르크스의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한 꿈은 마르크스와 그의 동지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설레게 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간절한 소망인 ‘*한 사람의 자유로운 성평등이 만인의 자유로운 성평등의 조건이 되는 사회공동체*’는 언제나 그랬듯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 소수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이다.

2) [EBS 스토리 기획]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그의 이름을 아시나요?” EBS 스토리 기자단 12기 김예은 기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6577&memberNo=1328891&vType=VERTICAL>)

3)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7년

4)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7년

참고 문헌 및 참고 자료

1.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한애경, 을유문화사, 2013년
2.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7년
3. [EBS 스토리 기획]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그의 이름을 아시나요?” EBS 스토리 기자단 12기 김예은 기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56577&memberNo=1328891&vType=VERTICAL>)